

공식 제안서

프로토와일드(ProtoWild) 고생물·멸종동물 실감형 미디어 자산 도입 제안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멸종 동물 및 고대 원생생물의 해부학적 화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극사실적 시각 자산을 구축하는 고증 미디어 플랫폼 **프로토와일드**입니다. 인위적인 형태 변이나 고증 오류가 없는, 오직 철저한 고인류학 및 고생물학적 팩트에 기반한 16K 8K 초고화질 영상 자산으로 박물관 미디어월 및 대형 전시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몰입형 경험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자연사 전시 및 웹 콘텐츠의 한계

시각 콘텐츠의 부재

국내외 대형 박물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전시 키오스크는 정적인 화석 골격 사진과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과 온라인 방문자를 붙잡아둘 **시각적 흡입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디지털 시대의 관람객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전시 현장의 갈증

박물관 큐레이터(학예연구사)와 학자들은 전시물의 격을 높이고 학술 연구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형태 왜곡이 없는 완벽한 고종 기반의 고화질 비디오 자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적 이미지 중심 콘텐츠 체계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적인 화석 사진과 텍스트 중심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와일드의 독보적인 고증 기술력

프로토와일드는 대중적 그래픽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위적 형태 변형이나 고증 오류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해부학적 화석 데이터에 기반한 생체 역학적 구조 구현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생물의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형태 고정 기술 (Morphological Precision)

해부학적 화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체 역학적 구조를 오차 없이 구현합니다. 방산충의 이중 구체 격자 및 위족 그물망 구조, 메가테리움의 너클 보행 자세 등 생물의 고유한 해부학적 특징을 완벽히 복원하여, 학술적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16K / 8K 초고화질 및 순수 자연음 규격

대형 미디어월 및 고성능 디스플레이에 즉시 상영 가능한 16K 및 8K UHD 60fps 마스터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음악을 배제한 채 실제 수압과 환경 마찰음을 재현한 '순수 심해·야생 자연 현장음(Natural Ambient Sound)'을 결합하여 현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검증된 오리지널리티

프로토와일드의 고증 영상 자산은 구글 (Google) 글로벌 비디오 검색 검수 엔진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전 세계 메인 검색창 첫 페이지 상단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과 나란히 노출되는 공인된 등급의 명품 아카이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미디어 자산 기술 규격

16K

최고 해상도

대형 미디어월 전용 마스터 클립

8K

UHD 표준

전시실 키오스크 및 대형 디스플레이

60fps

고프레임레이트

부드러운 움직임과 생생한 현장감

100%

오리지널 고증

화석 데이터 기반 형태 정확도

프로토와일드의 모든 영상 자산은 대형 미디어월 및 고성능 디스플레이에 즉시 상영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작됩니다. 16K 및 8K UHD 60fps 마스터 비디오는 인위적인 음악을 배제하고, 실제 수압과 환경 마찰음을 재현한 **순수 심해·야생 자연 현장음(Natural Ambient Sound)**을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진정한 현장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형태가 일그러지는 삼류 AI 그래픽과 달리, 철저한 골격 비례와 생태적 사실을 완벽히 복원한 자산만이 프로토와일드의 기준입니다.

고증 사례

해부학적 정확성: 방산충의 이중 구체 격자 구조

방산충(Radiolaria)은 약 5억 년 전부터 현생까지 이어져 온 해양 원생생물로, 실리카로 구성된 정교한 골격 구조가 화석 기록에 선명하게 보존됩니다. 프로토와일드는 방산충의 이중 구체 격자(Double-Sphere Lattice) 및 위족 그물망 구조(Axopodia Network)를 해부학적 화석 데이터에 기반하여 오차 없이 구현합니다.

이중 구체 격자

내구와 외구의 이중 층상 구조와 미세한 격자 무늬를 화석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재현

위족 그물망

방사상으로 뻗은 위족의 3차원 그물망 구조를 생체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구현

심해 환경음

실제 수압과 해류 마찰음을 재현한 순수 자연 현장음으로 심해 생태계 몰입감 완성

생체 역학적 복원: 메가테리움의 너클 보행

메가테리움(Megatherium)은 신생대 플라이스토세에 서식한 거대한 땅늘보로, 체중 약 4톤에 달하는 대형 초식동물입니다. 프로토와일드는 메가테리움의 너클 보행(**Knuckle-Walking**) 자세를 화석 골격의 관절 각도와 근육 부착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체 역학적으로 완벽히 복원합니다.

→ 골격 비례 정확도

화석 골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체형 비율 구현

→ 관절 가동 범위

화석 관절면 분석을 통한 생체 역학적 움직임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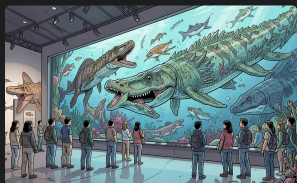
→ 생태적 사실성

플라이스토세 서식 환경과 행동 패턴의 학술적 고증 반영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3D 그래픽이나 AI 생성 이미지에서는 메가테리움의 독특한 너클 보행 자세가 왜곡되거나 일반 보행 동물처럼 표현되는 오류가 빈번합니다. 프로토와일드는 이러한 형태 왜곡을 원천 차단하여, 전시 관람객과 연구자 모두에게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다.

박물관 도입 시 기대 효과



전시실 관람객 체류 시간 극대화

화석이나 박제 전시물 옆 디스플레이에 프로토 와일드의 8K 고증 종합판 아카이브 영상을 연동하면 오프라인 관람객의 현장 체류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정적인 전시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관람객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교육 및 학술적 정당성 확보

형태가 일그러지는 삼류 AI 그래픽과 달리, 철저한 골격 비례와 생태적 사실을 완벽히 복원하여 전문 교육 자료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큐레이터와 학예연구사가 신뢰하고 추천할 수 있는 학술적 정당성을 갖춘 미디어 자산입니다.

협력 제안 모델



전시실 전용 라이선스

박물관 상설·기획 전시실 대형 스크린 및 키오스크용 미디어 라이선스 공급

- 16K / 8K 60fps 마스터 클립
- 대형 아카이브 종합판
- 전시실 디스플레이 최적화 포맷
- 순수 자연 현장음 포함



디지털 도감 전용 라이선스

온라인 박물관 및 시각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용 고화질 원본 비디오 소스 공급

- 웹사이트 및 온라인 전시용
- 시각 다큐멘터리 제작 소스
- 디지털 교육 콘텐츠 연동
- 다국어 자막 호환 포맷



두 모델 모두 박물관의 규모와 예산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상세 협의는 공식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및 신뢰성

글로벌 검증: 검색 엔진이 인정한 아카이브

구글 글로벌 검색 검수 통과

프로토와일드의 고증 영상 자산은 구글(Google) 글로벌 비디오 검색 검수 엔진을 완벽하게 프리패스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콘텐츠의 오리지널리티와 품질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나란히

전 세계 메인 검색창 첫 페이지 상단에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멘터리 브랜드와 나란히 노출됩니다. 이는 프로토와일드 자산이 학술적 정확성과 시각적 완성도 모두에서 글로벌 톱티어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공인 등급

검색 엔진 검수 완료

글로벌 노출

첫 페이지 상위 노출



파트너십 제안

학계와 전시의 격을 높일 완벽한 파트너

프로토와일드는 팩트 기반의 최상의 자산을 지원하며, 박물관의 학술적 권위와 관람객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본 고증 미디어 자산 도입 및 협업에 대한 상세한 논의나 기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공식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

protowild.shop



미디어 자산 검토

16K / 8K 샘플 클립 제공 가능



협력 논의

라이선스 조건 및 기술 협의 환영



전시 도입

국립생태원 및 국내외 박물관 대상

형태가 일그러지는 삼류 AI 그래픽을 지양하고, 철저한 고인류학 및 고생물학적 팩트에 기반한 초고화질 영상 자산으로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